

다산포럼



한재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맹자’ (孟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의 시장이란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교환하는 장이었으며, 관에서는 분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만 했다. 그런데 어떤 천장부(賤丈夫)가 나타나서는 깎아지른 듯한 언덕에 올라가 요모조모 관망한 다음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겼고, 따라서 그에게 세금을 먹이게 되었다. 상(商)행위도 세금을 먹이게 된 것은 바로 이 천장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농단’ (農斷)이라는 말은 말은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기 위해 천장부(賤丈夫)가 찾아 올라간 ‘깎아지른 언덕’을 뜻한다. 그곳은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시장은 본래 남는 것을 내놓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일종의 생태(生態) 현상이다.

하지만 그 생태의 현상을 사적인 이익 창출의 검은 시선으로 관망하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농단이다. 이곳을 점하고 앉아 누군가 애써 생산한 물건을 흔하다는

농단(壟斷)하는 천장부(賤丈夫)

이유로 혈값에 사들이거나, 누군가 애타게 찾은 물건을 숨겨 두었다가 값이 오른 다음에 내놓는 그를 맹자는 ‘천장부’라고 했다.

그런데 맹자의 ‘농단’ 이야기는 또 다음 이야기와 연결된다. 오래 전 중국에 자숙의(子叔幾)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재상으로서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였다. 하지만 임금과 뜻이 맞지 않아서 관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높은 관직을 물려주었다. 이러한 그의 행태를 보고 계손(季孫)이라는 사람은 “기이하도다, 자숙의여! ~사람 치고 그 누가 부귀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혼자서만 부귀를 사사롭게 농단하는구나”라고 비난했다.

자숙의는 임금과 뜻이 맞지 않아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시 말하면, 국정에 관한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이 임금과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재상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상은 높은 작위(爵位)와 엄청난 녹봉(祿俸)이 보장된 고위직이다. 국정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이유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숙의는 작위와 녹봉이라는 실물보다 소신과 철학이라는 명예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의 소신과 철학은 그 임금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였을까?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은 명예를 취하고, 아들을 통해 실물도 잃지

않는 체세술이 발휘된 것이다. 계손은 이를 “부귀를 사 사롭게 농단했다”고 비난하였고, 맹자도 이 생각에 동의했다.

‘맹자’ (孟子)에 따르면 천장부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독차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명확한 가치 판단에 따른 선택과 포기다.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부귀공명을 포기하거나, 부귀공명을 선택했다면 대의명분은 바라지 말아야 한다.

친일(親日)을 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면 독립(獨立)운동을 한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라 단순 부역만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산을 내놓고 가족을 희생한 분들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투기를 해서 재산을 불렀다면 공정한 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운이 빠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천장부들은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맹자나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다. 부귀를 농단한 것만으로도 천한데, 도리어 정의로운 척까지 하는 오늘날의 천장부들을 어찌해야 하나.

社說

정세균 후보 중도사퇴 민주당 경선 변수 되나

지지를 부진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끝내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정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난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밀려 4위로 뒤처지며 경선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밀린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를 자임하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지난 7월에는 이광재 후보와 전격 단일화도 이뤘다. 하지만 당 대표·국회의장·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 빼고 다 해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춘 데다,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통’을 자부했음에도 지지율은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이’(또 다른 호남 출신 정치인)이 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민주당을 사랑한다”고만 언급,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앞으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추진 장관, 박용진·김두관 의원의 5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지는 호남 지역 경선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 지사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호남 경선에서도 승리해 본선행 직행열차를 탈지, 이 전 대표가 미약하긴 하지만 정 후보의 표를 흡수, 뒷받침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정 후보의 중도 사퇴로 민주당 경선 흥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민주당이 본선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경선에서 어떻게 하든 흥행의 불씨를 살리고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 모두가 적극 동참을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전국적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관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제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련 아홉 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세 명, 북구 모 중학교 관련 네 명, 해외 유입 한 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세 명이 새로 확진됐다. 전체 확진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외국인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거세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123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비

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에 대비한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부 휴게소·철도역·터미널 등에서 추가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17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다행히 국내 백신 1차접종률은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64.6%, 2차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39.1%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동과 접촉이 늘면 바이러스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가 또다시 코로나 수확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그래도 백신 접종이 희망이다



조서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2학년

지난 9월 12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 64.5%, 완전 접종 39.0%이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했고, 열 명 중 네 명은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에 관해 많은 말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나 착실히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통제가 보여준다.

애초 백신 접종의 시작은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보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임상 실험 및 부작용에 관한 수많은 가지 뉴스가 파졌으며, 노약자와 의료 종사자 등 우선 접종자가 있다는 것 자체에도 반발이 많았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보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 오전 대한민국 최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전까지 1차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70%

를 넘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문제는 바로 부작용이다.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우선 접종자는 의료 종사자와 노약자 위주였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원인이 백신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노약자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서 평소 건강한 젊은이들 중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20대 남성은 화이자 1차를 접종한 뒤 소장이 썩어 접종 3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1차성 레이노’(손끝 쪽 혈관 연속)와 ‘기무라병’(귀 주위 염종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의사로부터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는 소견을 받은 뒤 접종했다고 한다.

또한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20대 여성도 접종 나흘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측되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여러 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예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건강한 20·30대라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이 생겨도 이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커져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증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효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 NC 다이노스 야구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모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백신 접종을 한 선수만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다.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 나가 사회성을 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교육 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집단 면역 형성은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의 감염률이 낮아지며, 후역 감염됐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증상이 덜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서로다 백신 접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기고

‘남도장터’ 농축수산물로 정을 나누자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예부터 추석에는 땀 흘려 지은 햅곡식과 과일을 수확해 차례를 지내고, 가족·친지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눴다.

농업인들에게 추석은 1년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축수산물을 팔 수 있는 대목 중의 대목이다. 이 시기에 농산물이 많이 팔려야 수확의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다음 1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소득도 올리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웃음이 피는 것은 덤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는 팍팍해졌고, 국민의 생활에도 제약이 많다. 불편한 것을 넘어 한계상황에 다다른 듯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 쪽은 상황이 더 낫다고들 하신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태풍, 냉해와 저온 피해, 늦은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

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추석에는 농산물 선물 가액 상황도 어려워 보인다. 이래저래 추석을 앞둔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코로나로 잔뜩 움츠른 마음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정을 나누는 마음까지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맞는 추석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게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길 희망해 본다. 정을 나누는 데는 선물 만한 것이 없다.

특히, 햅곡식과 햅과일이 나오는 추석 선물은 농축수산물이 제격이다.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전남도가 보장하는 신선하고 맛있는 선물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선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전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이 입점해 있다. 직거래를 하다 보니 생산자는 물건을 제값에 팔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다.

남도장터는 지난해 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추석 대비 205%가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판매액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품질 좋은 상품을 많이 준비했다. 할인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취향에 맞는 선물만 제대로 고르다면 가성비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전남 농축수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선물하세요’라는 주제로 남도장터 추석 선물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 14일까지 지자체, 도 산하 공공기관, 기업·단체, 향우회 등과 연계해 범도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남도장터 추석 선물 할인 이벤트, 대형포털 쇼핑몰과 연계한 특별 할인 행사,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도 병행한다.

차례상 준비와 명절 선물을 무엇을 할지 정했다면 힘들게 발품 파실 필요가 없다. 휴대폰을 꺼내 남도장터 어플에서 주문만 하면 소중한 분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사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우리 농어민들께도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귀향길에 나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남도장터’의 농축수산물로 마음을 전한다면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풍족한 명절이 될 것이다. 가족·지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이하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無等鼓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초반 판세가 이제 명 경기 지사의 ‘대세론’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사는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지역 경선에서 차례로 과반 지지를 획득했다. 이어 초반 판세의 분수령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을 넘는 득표율(25만3762표, 51.09%)로 2위 낙연 전 대표(15만3203표, 31.45%)를 10만 표 차이로 제쳤다.

이 지사 진영은 이기세를 몰아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지는 호남 경선에서도 과반 지지를 획득, 승부에 쐬기를 박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원직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친 이 전 대표는 1차 슈퍼위크 결과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격차를 많이 좁혔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호남 지역 경선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이 지사의 과반 지지를 저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전격적으로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두 이·이 후보와 함께 3강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까지 밀려 4위로 처지자 사퇴

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 지지를 받아 확고한 대세론을 형성한다면 일부 예비 후보들의 중도 사퇴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은 흥행 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선 후보 선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차기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달 초 발표된 한 국궐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론 수진율 이 전 대표는 1(49%)은 정권 재창출(3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여기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은 민주당의 대선 전망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결국 역동적 경선을 통한 감동적 대선 후보 선출만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과연 개인적 윤택(有不利)을 넘어 역동적인 분투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